

지역 소식 통

부안군,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부안군(군수권익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읍·면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산불취약지역에 전문 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해 불발소각 및 영농 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과(☎580-4448)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활동에 집중, 임차헬기 1대, 산불 진화차량 4대 등 주요 진화 장비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임진왜란 의병장

민여운 선생 추모제 열려

정읍 고을 백성들로만 구성된 '정읍 최초의 의병대'를 이끈 민여운 선생의 충절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모제가 지난 31일 정읍시 신외면 용두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후손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의병장 민여운 선생 선양회와 (사)정읍문화유산연구회가 주최한 이날 '민여운 선생 창씨 제433주년 기념식 및 추모제'에는 정동영 통일부장관 배우자인 여흥민씨 후손 민혜경 여사가 축사를 낭독했다. 또한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민여운 선생 선양회, 여흥민씨 입암공파 종친회 후손과 지역 주민, 관련 사회단체 등 약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병장 민여운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정읍 태인에서 정운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가해 용감히 싸웠다 전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에 명시'

정읍시 · 정치권, 국회서 한목소리... 토론회 개최 · 공동선언문 낭독

3·1운동의 뿌리아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항쟁의 출발으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국회의원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정치권,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의 뿌리아자 근대 국민 국가를 지향한 민중적·민족적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계보학적으로 이어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우리나라 민중항쟁의 시원을 이룬 역사적 대 사건으로,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혁 국회의원,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진 동학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 시대적 의의,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계보학적 사실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헌법 전문 학자 등이 참여해 발제의 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조건과 당위성, 타당성 등을 검토

학계와 정치권에서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발제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 모두는 국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 △정부·국회가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 △정읍과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헌법 전문 명시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것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면담을 가졌다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우리의 미래”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방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면담을 가졌다.

이번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부안의 미래가 달린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는 것.

특히 권익현 군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공약인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새만금 농생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임을 밝혔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국가적 사업”이라며 “그동안 산업

인프라에서 소외됐던 부안군과 전북 자치도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정대영 국회 예결위 위원회 전문위원과 만나 부안의 미래를 좌우할 부안 진서(왕포·작당마을) 낚시복합타운 조성(300억원),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40억원), 출포만 갯벌 식생복원(50억원),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192억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134억원), 부안 백산성지 역사문화관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80억원) 등 6대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내년부터 원전관련 교부세 받는다

행안부 지방교부세위, 방사선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확정 발표

한빛원전의 위험을 받고 있는 고창군이 보통교부세를 통해 매년 20~30억원의 방사능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고창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찰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이 실현될 경우, 군은 내년부터 24억7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되면서 주민 방사

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역지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8%, 전라남도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원 가량을 받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톨도 받지 못했다.

고창의 자존심이 걸린 이번 규정 개

선은 심적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이번에 지방교부세위원회 개선방안에 고창군까지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재정혜택을 받도록 든든히 챙겨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내장산, AI ‘광집사’ 서비스 개시... ‘스마트 관광’ 혁신 시동

대한민국 대표 가을 명소인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지난 3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혁신 서비스 ‘광집사’(관광 현장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AI 집사)를 선보이고 있다. 정읍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는 ‘스마트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2025 관광 현장 문제해결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에 최



종 선정돼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특히 이는 순천만국가정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정주형(定住型) 관광지로 확산되는 사례로, 국립정원과 국립공원

이라는 대표 자연관광지가 함께 스마트관광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장산은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선정될 만큼 위상을 갖췄지만,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3만 명이 몰리며 교통·주차난과 탐방로 파달 문제가 반복되는 과제가 있었다. 시는 그간 단풍 행락근무 등 현장 대응을 이어왔으며, 이번 공모 실증을 통해 AI 기반 관리체계를 더해 체감 효용을 높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하반기 ‘시민 정책제안’ 우수작 7건 선정

‘무성사원을 활용한 관광 먹거리 축제’와 ‘용산호 야간 드론 라이트쇼’가 정읍시 하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각각 시민·공무원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314건의 접수작 중 부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7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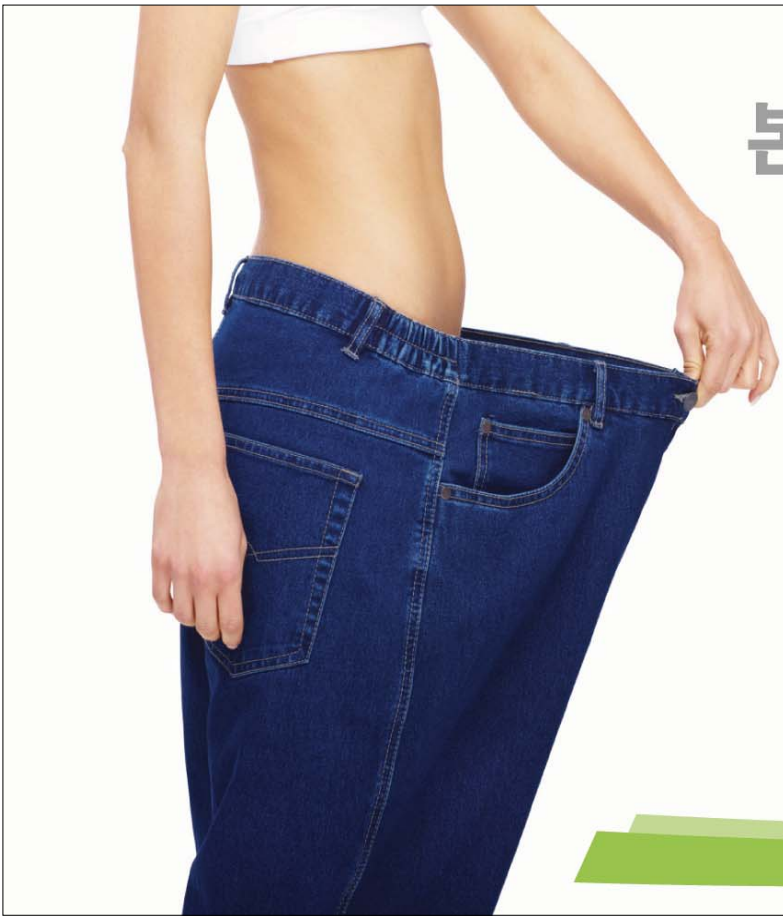
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을 실현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시민이 제갈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개선·시행해야 할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주제로 총 314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부서검토, 실무심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작 7건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정읍시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시민 부문에서는 칠보동 송09 씨가 제안한 ‘정읍형 관광, 먹거리 축제·무성사원 활용’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전임과 동시에 정착정보 ON(초산동 김0수)과 정읍형 편의 통근 통학사 대상 열차운임비 지원(내장상동 김0철) 제안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